

개소세 인하 차값 최대 143만원 할인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국산차 업체가 가격 인하 홍보와 함께 가격 할인·무이자 프로모션 등 적극적으로 3월 구매혜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발맞춰 주력 차종을 대상으로 최대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차종별 한정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영업점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대상은 아반떼, 쏘나타, 코나, 싼타페 등 4개 차종 약 1만1000대로, 정상가의 최소 2%에서 최대 7%까지 할인한다. 차종별로 아반떼는 정상가 대비 5~7%(약 2300대), 쏘나타는 3~7%(약 3800대), 코나 2~7%(약 1900대), 싼타페 4~7%(약 3000대)를 할인한다. 아반떼는 1.5% 저금리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아반떼 정상가가 1437만~2242만원이라는 점에서 100만~156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쏘나타의 할인 폭은 167만~240만원 사이, 싼타페는 약 192만~291만원, 코나는 약 136만~187만원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3월 개별소비세 감면 이벤트로 2020 쏘렌토

현대차, 4개 차종 정상가의 2~7%까지 기아차, 쏘렌토 구매자 8% 할인 혜택 쉐보레 '더블 제로 무이자 할부' 행사 르노삼성, 저리 할부·노후차 현금 할인

를 구매자에게 최대 8% 할인해준다.

또 모닝 구매자에게 기본조건 50만원에 생산월조건 최대 40만원 등 총 90만원을 혜택을 준다. K3 구매자는 최대 60만원, 스포티지 최대 150만원, 카니발 최대 200만원 등이다.

여기에 더블 캐시백 이벤트를 통해 3월 기아 레드멤버스 전용신용카드를 1500만원 이용시 스텝어와 K9은 최대 100만원, 쏘렌토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500만원 이상 결제시 모닝·레이도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도 이달 판매조건으로 선수금과 이자를 없앤 '더블 제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다시 내놨다.

이를 통해 스파크, 말리부(2.0 터보, 디젤), 이퀴녹스는 36개월, 카마로 SS는 50개월, 볼트 EV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현금 구매 고객에게는 차종별로 현금 지원을 한다. 스

파크 100만원, 말리부 180만원, 트랙스 120만원 지원을 비롯해 이퀴녹스는 차량 가격의 7%, 카마로 SS는 10%, 볼트 EV는 현금 300만원을 각각 보전해준다.

신입생·졸업생, 신규 입사자, 신혼부부, 신규 면허 취득자, 신규 사업자 등에는 20만~3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도 새로 출시하는 XM3에 대한 3.9% 저리 할부와 노후 보유차 고객에 대한 현금 할인도 3월 추가로 해준다. 노후차를 교체하고 SM6·QM6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80만원 할인 혜택을 주고 SM6 구매 고객에게 최대 245만원의 '프리 업그레이드' 프로모션 혜택을 준다.

전기차 SM3 Z.E.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600만원을 깎아주는 파격 할인을 한다.

쌍용차도 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가격의 1.5%를 할인해준다. 정부 인하분 3.5%에 1.5%를 더해 개소세 5%를 모두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화·온라인 사전상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렉스턴 스포츠&칸은 1.0% 우대할인을 제공하고, 이외 전 모델은 1.5% 우대할인을 제공한다. 렉스턴과 스포츠&칸을 제외하고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3.5%)에 더해 개소세 전액을 지원한다.

또 전 모델의 선수금 제로, 이율 0.9~5.9%(36~120개월)의 장기 할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쏘렌토



싼타페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하다

수요자 목적따라 개발 기준 완화 안전성 범위내 승차 정원 증가도 허용

이제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용자동차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작년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만4869대로, 2014년 말

(4131대) 대비 6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

여기에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해 적용된다.

취침·취사·세면시설을 비롯해 개수대, 탁자, 화장실 등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한다. 취침시설의 경우에도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만 갖추면 되고 변환형 소파도 가능하다.

가족 단위 수요를 고려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캠핑카 튜닝시 승차 정원의 증가도 허용한다.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동차의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화물차와 특수차간 차종 변경 튜닝 역시 허용하기로 했다.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통상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해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해 시장의 요구가 많은 점을 반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코로나 확산 방지 10억 기부

5월까지 판매 차량 1대당 10만원 적립 추가

메르세데스-벤츠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하고 추가 누적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을 통해 1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판매 차량 1대당 10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10억원 이상 누적되면 추가로 기부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범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의 설명이다.

기부금은 개인위생용품 구입하기 어려운 재난위기 가정과 코로나19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최전선에서 감염 위험에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봄맞이 상쾌한 공기 선물해 드려요

마세라티, 3월 신차 계약 고객 차량 미니 공기청정기 증정

이탈리안 하이퍼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는 봄을 맞아 3월 한달간 전국 9개 전시장에서 상쾌한 공기를 선물하는 '마세라티 프레쉬업 프로모션'(Maserati Fresh-up Promotion)을 진행한다

행사기간 신차 계약을 맺거나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에게는 차량 실내용 미니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9개 마세라티 전시장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마세라티 관계자는 "따스한 햇살이 가



득한 봄 시즌을 맞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포근한 봄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코로나 여파 지난달 완성차 판매 급감

현대차 13%, 기아차 5% 감소 한국지엠 14%, 르노삼성 40% ↓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들여오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는 등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완성차 판매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현대차 완성차 판매는 국내 3만9290대, 해외 23만5754대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한 총 27만5044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26.4%, 해외 판매는 10.2%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2012년 8월(3만5950대) 이후 처음으로 4만대 아래로 내려갔다.

기아차 역시 지난달 국내 2만8681대, 해외 15만9163대 등 18만7844대를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13.7%, 해외 판매는 3.2% 감소한 수치다.

기아차는 이번 달 특근을 실시해 2월에 발생한 생산 차질분을 최대한 빨리 복구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GM)도 지난달 국내외 완성차 판매가 2만8126대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0% 감소했다.

내수 판매는 4978대로 3.8% 줄었고, 수출은 2만3148대로 16.0% 감소했다.

르노삼성도 지난 2월 7057대로 1년 전에 비해 39.8%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3673대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4% 줄었고 수출은 3384대로 50.2% 감소했다.

쌍용자동차 역시 2월 국내외 완성차 판매가 7141대로 1년 전보다 24.7% 감소했다. 지난달 판매는 내수가 5100대로 32.7% 감소했지만 수출은 2041대로 7.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3월호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문화광주, 컬렉션을 브랜딩하라

문화 기획

5·18 40주년의 의미 되새긴다
2020 광주의 문화성찬

클릭, 문화현장⑤-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 & 대통령 기록관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⑥ 눈호강, 마인 강변 박물관 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③ 서울은 지금 즐거움과 안전을 디자인하는 중

매력적 컬렉션으로 브랜딩에 성공한 미술관들
광주시립미술관 컬렉션의 역사와 현재
남도미술관, 박물관들의 대표 컬렉션

예향 초대석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최태지
"단원들 창작 에너지 가득, 지원 기대"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송 해남이 낳은 작가들과 작품들 땅끝순례문학관

화제의 아카데미 지역성 넘고픈 오스카 '기생충' 원했다

유현준의 도시건축⑦ 의자는 건축의 '줄기세포' 전시리뷰 하루.K의 <와신짬뽕>전

새봄 기획 새봄엔 역시 봄꽃 전문가가 추천해 드립니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⑥ 연예인 죽음으로 내모는 사생활 사랑꾼들 스포츠 이야기 KIA타이거즈 플로리다 스포링 캠프 현장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개냥① 까칠한 소녀 얼굴에 웃음 준 반려견 '사랑이'

바루하루 나도 한 바퀴-나루 역사 타고 문화 속으로 나루 시간여행 - 생생한 천년고도의 숨결 - 특 쓰는 흥어, 달콤 멜론